



신라문화원 경주 남산불적 답사 회원들이 8월 3일 진행된 답사 유적 중 하나인 굴불사지 사면불상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백률사 뒤편의 삼존마애불상. 통일신라시대 마애 기법을 알 수 있는 유적이다.



동천동 사방불탑신석. 신라인의 신앙을 보여준다.



유적을 답사하고 있는 답사회원들.

찬란한 신라 불교의 시작, 북악 금강산에 서니...

북악 금강산서 바라본 남산

경주는 산이 둘러싸인 지형이다. 그러다 보니 산은 신라에 있어서 성소와 같은 곳이다. <삼국유사> 권1 기이1 진덕왕조에서는 신령스러운 네 땅이 있어 나라의 큰 일을 의논하는 곳으로 동은 청송산(靑松山)·남의 우지산(于知山)·서의 피전(皮田)·북의 금강산(金剛山)이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다.

이 같은 기록을 검토해 역사학자들은 신라에는 경주평야를 중심으로 동쪽의 토함산(吐含山), 서쪽의 선도산(仙桃山), 남쪽의 남산(南山), 북쪽의 북악(北岳, 금강산), 중앙의 북악(父岳)의 오악(五岳)이 존재하고 있었다고 해석한다. 이 같은 오악의 개념은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이후에는 국토 전역으로 확장된다.

이런 경주 신라문화원 남산 불적 답사는 오악 중 하나인 북악, 금강산에 오르기로 했다.

신라 불교의 시작을 알린 곳

경주 남산이 신라의 시작과 끝을 알린 곳이라면 금강산은 신라 불교의 시발점이 있는 곳이다. 법흥왕 14년에 이차돈 순교와 관련된 신라 불교의 성역이 됐기 때문이다. 산의 명칭 또한 불교경전에서 유래된 금강산 또는 금강령이라 불리게 됐다.

본래 금강산은 경주의 북동쪽에 위치해 북악이라 불리웠으며, 해발 176.8m, 남북 2.75km, 동서 0.7km 되는 세장한 형태의 산이다. 골짜기가 깊지도, 산이 그리 높지도 않은 평범한 산이기는 하나, 신라 초기부터 이치 시조 양산존자 알평과 표암이 얽힌 전설이 있는 성산이다.

이 산의 명칭은 처음 왕경에서 볼 때 북쪽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북산, 북악으로 지칭되다가 근세에 와서는 소금강산이라고도 부르고 있는데, 이것은 강원도에 있는 금강산과 혼동되지 않기 위해 소(小)자를 첨가한 것이다. 하지만 조선시대의 기록에는 모두 금강산(金剛山)으로 표기하고 있다.

신라인의 불상, 사방·사면불

용강동 고분을 지나면 앞으로 금강산이 보인다. 금강산을 동서로는 사찰이 연이어 세워졌다. 지금도 그 터와 유구들이 보존돼 있다.

답사단이 가장 먼저 찾은 사지는 동천동 사방불탑신석이다. 흔히 '동천동 사지(寺址)'로 불리는 곳으로 탑신석의 주변에 또 다른 석탑재와 장대석이 남아 있다. 그리고 통일신라시대의 기와 조각과 고려 청자 조각이 흩어져 있다.

현재 높이 약 82cm로 탑신석 네 면에 여래좌상이 새겨져 있다. 네모진 탑신의 좌우 끝에 우주(甬柱, 모서리 기둥)를 알게 새기고, 그 중앙에 두광과 신광을 갖춘 여래좌상 1구씩을 조각해 전체적으로 사방불(四方佛)을 표현했다.

이 같은 사방불은 신라인들의 불심을 알 수 있는 도상 중 하나다. 최민희 신라문화원 부설 연구소장의 설명에 따르면 신라에 불교가 전해지면서 불상과 경전이 들어왔고, 그 후에 목탑과 전탑이 들어왔고, 탑재의 항구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통일신라시대로 접어들면 백제에서 시작된 석탑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통일신라시대에 석탑의 표면에 장식된 돌을세김상들의 유형은 외호적, 신앙적, 장식적 기능과 이들이 합쳐진 기능으로 분류된다. 이중 사방불탑은 신

앙적 의미가 강하다는 것이다.

"탑에 사방불을 조각한 것은 탑의 가운데에 부처님의 사리를 모셨다면 이는 법신불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각 면에 사방불이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상의 바탕에는 비로자나불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사방에 각각 사방불을 조성하는 신앙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여겨 집니다. 사방불이 조각된 탑은 그 자체가 하나의 작은 부처님 세계를 형성화한 것입니다."

경주 곳곳, 사방불 신앙 '눈길'

천경림서 잘린 이차돈의 목

금강산에 떨어져... 사찰 건립

남산과 더불어 신라 오악들

천년 경주를 수호하고 있네

비슷한 개념의 불상을 인근 굴불사지에서도 만날 수 있다. 8세기 경덕왕 때 창건됐다고 전해지는 굴불사에는 큰 바위 네 면에 여러 불보살상이 조각된 사면불을 만날 수 있다. 사면석불의 사면에는 사방정토를 주재하는 아미타삼존불, 동면에는 약함을 들고 있는 약사여래, 남면에는 석가삼존불, 북면에는 두개의 보살상이 있는데 왼쪽에는 선각으로 표현된 십일면의 얼굴과 여섯개의 손이 달린 십일면육비의 관음보살상이 있고 오른쪽에는 부조로 표현된 보살상이 있다.

<삼국유사>에는 사방불이라고 칭했지만 남산 절

불암의 사방불과 같은 엄밀한 의미의 사방불이라 할 수 없으므로 사면불이라 해야 한다는 게 최 소장의 설명이다.

"원래 동서남북에 불상을 조각하는 것은 사방정토를 상징하는 것으로 대승불교의 발달과 더불어 성행한 사방불 신앙의 한 형태였습니다. 불교 경전이 나 불상에 나타나는 사방불의 명칭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이 불상의 경우 어느 특정 경전에 의하였다고 하기 보다는 당시의 대승불교에서 가장 널리 모셔졌던 불상들을 배치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살펴보면 네 면의 불·보살상들은 모두 양식과 크기가 다르다. 서쪽 면과 동쪽 면의 조각상은 크고 우람하며 힘이 있는데 비해 남쪽 면과 북쪽 면의 조각상은 작지만 세련된 조각 솜씨를 보여준다. 이로 미루어 굴불사지 사면석불은 같은 시대에 모두 조각된 것이 아니라 시대를 달리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차돈의 본명은 '박연축' 일이다

금강산 인근에서 가장 유명한 사찰을 들자면 백률사를 꼽을 수 있다. <삼국유사>에 의하면 법흥왕 14년 이차돈이 불법을 포교하다가 순교하였을 때 그의 목을 베자 흰 옷 같은 피가 한길이나 솟았고 그의 목도 금강산으로 날아가 떨어졌다고 한다. 그때 나라 사람들은 이를 슬피 여겨 금강산의 좋은 터에 이차돈을 위하여 자추사라는 사찰을 창건했다고 한다. 현재 혹자는 백률사를 자추사가 변한 것이라고 추정한다. 자(劑)는 '젓' 이니 백(劑)과 같고, 추(楸)는 '밤' 이니 울(栗)과 같은 의미라는 것이다. 사찰 명을 떠나서, 이차돈의 유해가 금강산과 연관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사족을 붙이자면 이차돈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다.

그의 성은 박 씨고, 이름은 연축으로 일찍부터 불교를 신봉했다. 당시 왕이었던 법흥왕과 함께 불교를 신라에 전하기 위해 스스로 거짓 전명해 천경림에 불사를 시작했다. 이로 인해 이차돈은 22세의 나이에 참수를 당하게 되고, 익히 알고 있는 신이한 사건이 생겼으며, 신라는 불교를 받아들일게 된다.

이후 법흥왕은 천경림 일대에 신라 최초의 정사를 건립하며, 절이 완공되자 법흥왕은 왕위를 진흥왕에게 물려주고 스스로 승려가 돼 법공(法空)이라고 불렀다. 세상 사람들은 이 절을 대왕흥륜사라고 했다.

백률사 뒤편 동쪽으로 오르면 경성북도유형문화재 제194호 마애삼존불좌상이 있다. 중앙의 본존불은 여래상으로 높이가 3m에 이르며, 좌우에 각각 협시불이 새겨져 있다. 부분적으로 마멸되어 보존 상태는 좋지 않으나 옷과 손의 모습 등을 알게 들을 새긴 조각솜씨가 뛰어나 통일신라시대 마애석불 연구에 귀중한 자료이다.

신종일 기자 motp79@hyunbul.com

현대불교신문사 · 신라문화원 9월 경주 남산불적답사

- 주제 : 남산의 자연과 복원탐을 찾아서
- 일시 : 9월 7일 토요일 오전 9시 출발
- 준비물 : 간편한 복장, 도시락, 필기구
- 동참 비용 : 2만원 (회원, 학생 1만8천원)
- 문의 : 054)774-1950, www.silla.or.kr

2014년 삼보불교 달력 주문 접수중!

《카다룩과 카렌다 샘플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주시면 보내드립니다.》

카렌다 지역판매 가맹점 모집

문의전화. 031) 732-9905 Fax. 031) 732-8972

삼보불교카렌다에서는 **부처님의 사상**과 **가르침**을 담은 **질높은 카렌다**들을 제작하여 보급 해 왔으며, 2014 갑오년에도 **의미있고 주제**가 있는 새로운 카렌다들을 추가로 제작 하였습니다. 다양한 내용의 카렌다, 고급스럽고 수준 높은 50여종의 카렌다들을 만나보세요.



지혜동자



연꽃항기



구도자의 길



천진동자



산사와 주련



반야심경



운봉스님의 달마도



심우도



산사에 피는 야생화



민족의 산하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인도 8대 성지순례



산사의 미(발원)



보현스님의 동승이야기



관세음보살도 (한지카렌다)



인생의 도



생활한방차



불보살님의 미소



풍경소리



한국의 보탑



법음이 깃든 신사(1월, 정수사)



(2월, 중대사자암)



(3월, 통도사)



(4월, 광덕사)



(5월, 보탑사)



(7월, 송광사)



(8월, 홍련암)



(10월, 신륵사)

(11월, 용문사)

(12월, 불국사)